

AUTHOR 김덕복

TITLE 종교개혁의 현장을 가다

IN 월간고신

61호 (10, 1986): 14-18.

62호 (11, 1986): 56--57.

63호 (12, 1986): 58-61.

종교개혁의 현장을 가다

나는 달리 더 말할 수
없읍니다라고 외쳤던 마틴
루터의 흔적을 비롯 칼빈과
쓰빙글리의 발자취

빈 을 떠날 때 출발을 방해나 하듯 얹
수같이 퍼붓던 소나기도 멎고 검은
구름사이로 먼동이 틀 무렵 밤을 한숨에
달려온 우리들의 차는 독일의 국경도시
파사우를 들어서고 있었다. 토요일 까지
약 3천 내지 3천5백 킬로를 달려 루터
칼빈, 쓰빙글리의 숨결이 서린 종교개혁
의 현장을 둘러 보기 위해 대장정을 시
작했다. 오지리,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비스듬한 삼각형을 그리며 중부 유럽을
한바퀴 돌아 알프스를 따라 들어오는 길
을 택했다. 몇년을 유럽에 살면서도 모처
럼 떠나는 여행이고 보니, 한국인 특유의
기질을 살려, 단번에 다 보고 말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말았다. 우리 세
식구가 6만 킬로 이상 달린 고물차에 몸
을 싣고 빙을 빠져나올 때 시간은 새벽 2
시였다.

소나기 때문에 다소 늦게 독일 국경을
넘었지만, 덕분에 바이에른의 베네딕터
라 불리워지는 물의 도시 파사우의 상쾌

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볼 수 있었다. 바
로크 양식의 건물들로 꽉 들어찬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뿍 지닌 도시이다.
일초, 인, 도나우 세개의 강이 만나는 곳
이라, 이 강들을 타고 들어온 다양한 문
화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찰츠부르크를 통과하는 오지리 1번 고
속도로와 독일 8번 고속도로를 피하고
도나우 강변 계곡을 따라 들어가는 코스
를 택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다.

여행을 할 때 자주 다니던 길을 또 달
린다는 것은 보통 따분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좀 두르긴 하지만 이 길을 택했
고, 더우기 독일 92번 고속도로는 아름답
기로 유명한 바이에른 숲을 베고 누워있
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충분한 호기심을
자극하고도 남을 만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둔한을 지나 아우구스부르크에 가까워
질 무렵 하늘은 한국의 초가을 날씨를 연
상할 정도로 활짝 개었다. 아우구스부르

독일교회는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교파가 형성되므로 독선적
교권주의자나 분열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마음대로 쪼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되었다.

그는 종교 개혁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
을 만큼 중요한 도시이다. 특별히 독일
종교 개혁사를 이야기 할 때 이곳은 반
드시 언급되어져야만 하는 곳이다. 루터
교의 선조가 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
백서가 1530년에 작성되었으며, 1555년에
는 신구교간에 이루어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해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이보다
앞선 1518년엔 이곳에서 그가 내전 95개
조 논제에 대한 철회를 종용받아야만 했
었다.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던 작센 선제후와 독일의
영주들 및 도시들이 신성 로마제국 카알
5세에게 28조에 걸쳐서 자신들의 신앙
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것은 루터가
작성한 슈바하 및 마부르크 신조와 다른
위원들에 의해서 작성된 토르가우어 신
조를 기초로 해서 루터의 동역자 멜랑톤
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고
백서는 독일, 스위스, 오지리에서 어느
교파에 속하느냐고 물을 때, 루터파와 개
혁파교회를 구분해서 A. B. 또는 H. B.
로 대답할 때 혼히들 사용되어 진다. A.
B.란 자기는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
신앙고백을 믿는 루터교 신자란 뜻이고,
H. B.란 자기는 스위스 신앙고백(Helve-
tischen Bekenntnis)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믿는, 쭈빙글리나 칼빈의 신
앙적 유산을 따르는 개혁파교회 신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교파가 형성되므로 독선적 교권주의자나
분열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를 마음대로 쪼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같은 신앙고백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수십개씩 다른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교회로써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 여겨졌다.

그리고 이 도시는 1548년 조인된 가신
조 협정이 26조항에 걸쳐 모두 신교도들
에게 불리한 것으로 되어져 구교도와 신
교도들 사이에 투쟁이 날로 심해감에 따
라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1555년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결의하므로 일
시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①독일의 제후와 각 도시들은 둘중 어
느 것을 선택하든 자유이고 그 관할 지
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그 선택을 따르
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난다. (단 루터
파를 제외한 칼빈파나 쓰빙글리파는 이에
서 제외한다)

②구교에 속했던 제후가 선교로 개종
할 경우 그 지위와 영토는 자동적으로 상
실하게 되고 그 후임자는 구교 신자로 한

다.

③신교(튜터파) 영토에서는 구교의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로써 얼마간 잠정적인 평화를 누리긴 했으나, 그 어느 때도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결의였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부르그 종교화해는 유럽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되었던 30년 전쟁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다.

뮌헨에서 아우구스부르그로 들어가는 길목에 인구 2만에 못 미치는 프리드르 그란 작은 도시가 있다. 17~18세기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경건주의자(Pietist)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곳이다. 중심지에서 한참 떨어진 들 가운데 Herrngottsröh란 교회가 그들의 한을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었다. 절규에 가깝게 불렸던 그들의 찬송이 그들의 그 기도가 내 깃전에 와 닿는듯 했다. 죽음으로서도 그 혹독한 박해를 견디지 못해 결국은 그들도 보헤미아 형제들처럼 진젠돌프 백작이 제공한 해렌후트란 마을로 눈물을 뿌리며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단다.

그곳에서 약 5분 가량 차를 달려 리 강 위에 걸쳐진 다리를 지날 때쯤 아우구스부르그의 성. 올리히 교회와 도움이 한눈에 들어온다. 로테스 토르를 지나 옛 시가로 들어서니, 아무 말없이 수많은 인간들의 진실과 거짓, 신의와 배신을 지켜보아왔을 카로리넨 막시밀리안 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엮어왔던 건물들이 여기저기 자리잡고 있었다.

1518년 10월 젊은 청년 수도사 루터가

머물면서 로마 교황의 특사로 파견된 초기 카제탄으로부터 95개조 논제에 관하여 철회할 것을 종용 당했으나 그것을 뿐만 아니라 신변에 위험을 느껴 밤중에 애음을 틈타 탈출했다는 갈멜수도원이었던 성. 안나 교회에 들어 섰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회에 사로 잡혔다. 그 퇴색한 긴 희랑과 낡은 쇠 문고리 하나 하나에 역사의 진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찾았다는 그곳, 루터를 기념하는 상들과 수많은 현장 표시판이 붙어 있는 단순한 그곳이 그때는 얼마나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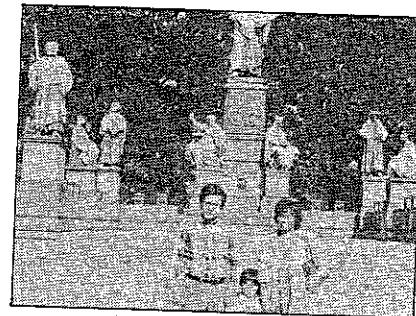
한 무명 수도사의 얼빠진 행동으로 웃어 넘겼던 로마교황청은 95개조 논제의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 유럽을 타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 경 카제탄을 아우구스버그로 보내어 교권으로 그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확신에 찬 루터는 이미 헛병아리 무명 수도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이 95개조는 새로 시작된 사건이 중세 가장 큰, 그리고 교회사에 한 전환점이 될 줄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골스타트와 뉘伦베르그를 거쳐 하이델베르그에 도착했을 땐 벌써 저녁 9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황태자의 첫사랑”이란 작품으로 잘 알려진 5백년의 전통을 가진 유명한 대학이 있는 네카르강을 끼 낭만적인 도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시를 낭만적인 곳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내 전지 6개월 후, 아우구스부르크에 소환되어 로마교황 특사 초기경 카제탄을 만나기 6개월 전, 1518년 4월 이곳에서 어거스틴파 수도사회가 모였고 루터는 이곳에 와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인문주의 학자들과 개혁사상에 동조하는 많은 교수들의 지지를 받으며 첫 토론을 벌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1562년 프레드릭 3세가 자기 영내에 칼빈주의자들을 받아드린 후, 이곳 대학교수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에 의하여 작성된 전 3장 129조에 달하는 교리문답을 제정 공포하므로 개혁주의 대표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로 칼빈주의적 영향 속에 이 도시가 머무르게 되었고 독일의 대학들 중에 몇 안되는 구교 신학부가 없이 신교 신학부만 있는 곳이 되었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기사의 집(Haus zum Ritter)은 칼빈주의 교도였기 때문에 고향땅을 등지고 이곳에棲거와서 살아야했던 그들의 고귀한 신앙 유산을 음미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종교개혁 당시 1526년과 1529년에 제국 국회가 소집되었던 스페이어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서남쪽으로 차로 30분 정도 달리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1526년 국회가 열렸을 땐, 그 전에 결의된 사항들이 파기되고 1521년 웜스 칙령과 구교의 제도와 예배의식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결의하므로 이에 반발한 6명의 영주와 14개의 도시들이 이에 대한 항의



웜스 루터의 기념상 앞에서

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므로서 신교도에게 프로테스탄트(항의자)란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곳에서 라인강을 따라 50분 가량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올라가다, 원쪽으로 47번 국도를 따라 강을 건너면 니베룬겐이 야기로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의 높은 철탑 4개가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월스임을 알게 해 준다.

황제 카일 5세는 1521년 1월 27일부터 5월 27일 까지의 회기로 제국 국회를 웜스에서 소집하였다. 프랑스와의 불가피한 전쟁 때문에 소집된 국회였지만, 로마교황의 협조를 필요로 했던 그는 교황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말썽이 되고 있던 루터를 국회로 소환하여 그 개혁 주장을 철회시킬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어 루터는 정치적, 종교적 음모가 섞인 제국 국회 앞에 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후스처럼 잡혀 처형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의 웜스 행을 만류했다. 그러나 그는 “지붕의 기왓장만큼 많은 악마들이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려 한다” 면서 1521년 4월 16일 오전 10시 그들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재판장에 서기 위해서, 이 도시로 들어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개선장군처럼 맞이했다.

다음날 오후 4시 출두 명령을 받고 6시에 입장이 허락되었을 때, Luther는 법무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첫째, 그대의 이름으로 인쇄된 이 책들이 모두 그대의 것이라 인정하는가? 둘째, 그대는 이 책들의 모든 내용들을 취소하겠는가? 지지하겠는가?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그 책들은 모두 나의 것이며 그밖에도 더 많이 썼습니다”하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질문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관계되어 있고 영혼의 구원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니다. 이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너무 적게 말하는 것이나 필요하지 않을 때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위하여 좀 생각 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황제와 국회 앞에서 루터는 확신에 넘치는 자세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취소한다든지 지지한다는 답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뒤에 “나는 성경과 이성에 의해서 잘못이라 느끼지 않는 한 교황과 교회 회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의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않고 완전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어떤 문서들에는 “나는 여기 섰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했다 한다.

라인강에 걸린 니베룬겐교를 지나 시내로 들어서면, 곧 바로 옛 시가지 성벽이 보이고 루터가 이곳을 떠날 때 통과했다는 좁은 옛 성문이 있고 그곳에서 조금 들어가면, 시내 중심가에 우뚝 솟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 나오고 그 성당에 붙어서 숲이 있고 그 숲 속에 있는 카이젤 비숍광장이 바로 루터가 황제 카알 5세 앞에 섰던 곳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건물안에 섰다고 하기도 한다.

그 살벌했던 역사의 현장에 나 자신을 세우고 대답을 요구해 보았을 때, 부끄러워 그곳에 더 오래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곳을 빠져나와 길을 건너면 루터 기념비가 웅장하게 세워져 있다. 성경을 힘차게 안고 선 그의 발밑엔 Hier steheich,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fe mir. Amen! 이라고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 그의 청동 입상 주위엔 종교개혁이전의 유명한 네 개혁자, 프랑스의 월두스,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 이태리의 사보나를라와 동역자 멜랑톤 등의 상들이 루터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역을 돌아 시내를 빠져나오는 길목에 그때의 전설을 지닌 고목나무 등결에 조각되어 있는 루터의 모습을 뒤돌아 보면서 차를 남쪽으로 몰았다. ♣(다음호에 계속)

새로운 종교개혁이 요청되는 덴마크

종교개혁의 물결

1517년 10월 종교개혁의 서막이 올려진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개혁운동의 여파는 북구의 덴마크까지 밀려갔다.

덴마크에서의 종교개혁운동은 일반 회중들로 부터라기 보다는 국왕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를 소개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덴마크 국왕 크리스찬 2세는 종교개혁운동을 이용하여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려 하였으나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한 채 국외로 유배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529년에는 크리스찬 피터슨이 신약성경을 덴마크어로 번역 출간하였으며, 크리스찬 3세 때인 1536년에 이르러서는 요하네스 부겐하겐이 옛 예배의식을 배제한 새로운 예배형태를 도

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와 때를 맞추어 이나라는 기독교(루터교)를 국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덴마크 국민들은 로마교의 지배를 벗어나 성경의 권위를 개인식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16C 종교개혁의 일부를 담당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20C의 덴마크인들은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흐트러진 윤리적 현실

‘덴마크’라고 하면 우리는 우선 풍차와 인어공주, 그리고 그룬트비히, 안데르센, 키엘케골 등을 머리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세계 최상의 사회복지 국가로 만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으로 부터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든 칼빈의 흔적들

88 서울 올림픽 유치에 개가를 올린 독일의 휴양도시 바덴바덴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칼빈의 열이 서려있는 제네바로 내려가기 위해 5번 고속도로를 약 30분 달렸을 때, 프랑스의 스트拉斯부르그로 돌아가는 진입로 표시판이 보였다. 이곳은 칼빈이 파렐과 함께 의욕적인 제네바 개혁을 착수했다가 시민총회와 2백인의 반대에 부딪혀 추방을 당하여 쓰라린 심정을 달래며 3년을 보냈던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교수로 그리고 또 프랑스로 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온 사람들이 모이는 난민교회 설교자로 활약했으며, 로마서 주석과 기독교 강요 증보판을 간행하기도 했다. 초기경 사도레토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독일의 개혁자들과 교류도 가졌으며, 여러명의 자녀들을 가진 화란에서 피난온 스토르더란과 부와 1540년 결혼식 올리고 가정을 이루기도 했다.

칼빈과 파렐을 추방했던 제네바 시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여러명의 새로

운 지도자를 초빙했으나 아무도 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파렐과 그를 다시 모셔오기로 결의하였으나 그는 둑시 주저하다가 파렐의 강한 권유에 힘입어 다시 제네바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가 남긴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구교가 절대 우의를 차지하는 프랑스에서 이곳만은 신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고 대학은 칼빈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신학부로 잘 알려져 있다.

독일과 프랑스 국경을 이루고 있는 라인강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오던 고속도로가 프라이버그를 지나자, 강변을 타듯 스위스 바젤까지 연결되어 있어 강변도로의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보덴 호에서부터 스위스와 독일을 파트너로 마주잡고 다정하게 서쪽으로 흐르던 라인강이 파트너를 바꾸어 스위스를 뒤로 하고 프랑스와 손을 맞잡고 북쪽으로 흘러 올라가는 지점에 스위스 육로교통의 관문이라고 하는 바젤이 자리잡고

있다. 바젤은 신학을 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튜빙겐 등과 함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자리를 지키던 곳이며 특히, 칼 바르트, 오스카 줄만의 상벽을 이루었던 곳이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여권을 내밀었더니, 웃으면서 보지도 않고 뒷차들이 밀린다고 빨리 빠져 나가란다. 한국검문소 지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성겁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유럽은 결국 하나란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고국땅을 등지고 나온 칼빈이 이곳에 머물면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1536년 강행했던 곳이며, 1528년 이미 오에코람파디우스가 종교개혁을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1534년에는 Myconius가 그의 유고를 정리하여 시당국으로 하여금 공포하게 했는데 이것을 ‘바젤 신조’라 한다. 이것을 제1바젤 신조라고 1536년 개혁자 미코니우스에 의하여 작성된 전 스위스 교회를 위한 고백을 제2바젤 신조라 하며, 일명 제1스위스 신앙고백이라고도 칭한다. 이 신앙고백은 다른 문제보다 특별히 성찬론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거쳐 스위스 교회를 하나로 묶은 최초의 통일신앙고백으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신앙고백을 작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쓰빙글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트拉斯부르그와 콘츠탄츠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1566년에 와서 칼빈파와 쓰빙글리파 사이에 절충적

인 신앙 고백의 탄생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제2스위스 신앙 고백인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독일의 상황과는 달리 1528년 스위스 개혁자들이 10개조의 논제를 내걸고 유리한 입장에서 논쟁을 벌였고, 이로 인하여 쓰빙글리, 오에코람파디우스, 파렐 등이 개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성공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곳이다.

9번 고속도로를 벗어나 아래 강을 끼고 있는 배른을 보았을 때, 수도라고 하면 흔히 서울, 동경 같은 대도시만 연상하는 우리들에게는 손바닥만한 도시라고 표현해야 마땅할 것 같았다. 인구 불과 15만의 중세 도시의 원형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1키로도 채 안되는 중심가엔 스위스의 상징인 시계탑이 세워져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최후의 심판”조각으로 잘 알려진 대사원이 우뚝 서 있다.

세계적인 대규모 기독교 집회가 자주 열리는 로잔을 거쳐, 아름다운 레만호의 경치를 내려다보면서, 산기슭에 걸린 유럽 4번 고속도로를 한 시간쯤 달려 내려가다 보면 프랑스 영토 깊숙이 파고들어 자리잡고 있는 제네바에 도달하게 된다.

칼빈이 이 도시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536년의 일로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간행한 뒤 이태리 여행을 마치고 스트拉斯부르그로 가서 조용히 학문에 종사하려는 뜻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난리로 인하여 길이 막혀 부득불 이곳을 경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칼을 든 개혁자

쓰빙글리

웅프라우 산정의 만년설과 아름다운 두 호수를 끼고 있는 인터라켄에서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호반의 도시 루체른을 둘러 쓰빙글리의 도시 츄리히에 도착했다.

츄리히 시는 인구 10만의 제네바에 비하여 스위스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연결해 주는 유럽의 항공교통의 요충지이자, 국제 금융도시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통하여 유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도시의 개혁을 위하여 생애를 바친 개혁자 쓰빙글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쓰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 성·갈렌 주 벨드하우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보다 약 2개월 늦게 태어났다.

유복한 가정에서 어릴 때 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는 1494년 바젤에 가서 분즐리에게 라틴어를 배우고 1496년 베른의 인문주의 학자 볼쓰린 밀에서 최초로 인문주의 사상을 접했다.

1498년엔 오자리 빈대학에서 철학과 고전을 공부하기도 했으며, 1502년부터 바젤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구학교에서 라틴어를 가르쳤다. 이곳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인문주의적 사고로 굳어진 신학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발견한 후부터 그의 신학사상은 성경중심과 은혜중심 사상으로 굳어져 가기 시작했다.

1506년 바젤에서 학위를 받고 처음 부임한 목회자가 알프스의 첨첩산 중 작은 도시 글라루스란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확신에 넘치는 힘찬 설교로 말미암아 스위스의 북부 지역으로부터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다.

1516년에 아인수델이란 곳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깊은 교부학에 대한 연구와 민중들의 미신적 신앙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멀다는 것과 개혁의 필요성을 더 깊이 통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설교때마다 성경중심의 신앙만을 전했다고 한다.

1519년엔 대도시 츄리히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페스트에 걸렸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 더 깊은 개혁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츄리히는 그 당시 인구 7천에 불과한 도시였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모든 도시들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높은 근대적 의식으로 진보적인 많은 동조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 1523년 그에 의하여 67개조 논제가 제출되어 토론에 불인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하여, 츄리히는 신교의 중심도시로 변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을 개인의 행위는 물론 국가의 윤리와 교회의 실천을 통제하는 신적 윤법으로 보았다. 그래서 루터와 달리 국가와 정부까지 그 개혁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실은 칼빈보다 먼저 신정정치 이상을 주장했던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성경은 국가의 법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지지세력을 축소시키고 말았다. 같은 시대 개혁자였던 루터와는 대부분 사상에서 일치했지만, 성찬문제에 대하여서만은 서로 좁힐 수 없는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1529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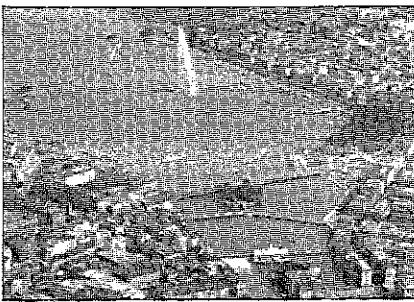
1531년 3월 슈탈칼텐 동맹이 결성되자, 스위스의 개혁세력들은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그는 그해 10월 갑작스런 구교파의 공격을 받고 카펠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츄리히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림마트 강 어귀에서 옛 시가지를 바라다보면 강 어귀에서 둘째번 다리가 있는 원쪽에 성 베드로의 교회가, 오른쪽 산쪽을 향한 비탈진 곳에 위치한 대사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림마트 강변도로를 따라 늘어선 거리엔 아직도 중세의 잘 발달되었던 상업 도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옛 시가지의 가장 유명한 명물은 뛰니해도, 60미터나 되는 높은 두 개의 첨탑을 가지고 서 있는 대사원을 들 수 있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건립된 이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 중 그 백미를 이룬다. 그리고 이 사원 남쪽에 자리잡은 쓰빙글리 기념동상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 발을 앞으로 쭉 내밀고, 양팔로 성경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있다.

옛 시가지에서 츄리히 호반을 따라 남쪽으로 자동차로 15분 가량 내려가면 지금은 츄리히 시에 속하는 졸리콘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Anabaptist)들이 모여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의 무의미성을 주장하고 다시 세례를 베푼 곳으로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

1523년 쓰빙글리의 개혁 운동에 대하여 너무나 보수적이라는 불만을 가진 일



레만호수가에 펼쳐진
제네바의 모습이다.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가 공용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불어가
통용으로 쓰인다.



카펠의 전투지에서, 멀리
쓰빙글리가 전사했을 거라는
산비탈이 뒤로 보인다.

단의 사람들이 있었다. 험마이어라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는 원래 쓰빙글리의 츄리히 개혁운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자이나, 1523년 5월 성경에 유아들에게 대하여 세례를 베풀라는 근거가 없다고 믿고 쓰빙글리와 토론을 벌였다. 1524년에는 그에벨와 만초도 여기에 동조하고 유아세례의 무용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츄리히시 당국은 1525년 1월 이들과 쓰빙글리 사이에 공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그 토론 결과 쓰빙글리의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받게 되어 모든 부모들에게 유아세례를 받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시당국의 처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땅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라, 거부하고 이곳 졸리켄에서 재세례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그들은 다른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고, 상당한 지지속에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래서 1526년 3월에는 시당국이 이들에 대하여 물에 넣어 죽이는 처형을 명령했다. 이러한 박해로 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만초도 다른 신자들과 함께 수장에 처해 졌고, 휴 마이어는 농민 선동 혐의를 받고 모라비아 지방으로 피해가 그곳에서 또 다시 그들의 세력을 키웠고, 그 결과 이 운동이 독일과 화란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운동이 농민전쟁을 일으키는 동인이 됨으로 쓰빙글리와 루터의 개혁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곳곳에서 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종교 개혁은 사회전반의 개혁까지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서 귀족들과의 타협 아래 개혁을 수행하고 있던 루터로 부터 과격했기 때문이란 이유로 배신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럽에서 있었던 최초의 민중봉기였고, 민중 각성 운동이었다.

그 당시 북부의 대부분 도시들은 개혁에 동조했지만, 루제른과 산림주들(알프스 산간지방들)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호수 산림지대에 위치한 루제른, 츄그, 슈비츠, 알트돌프 등이 1529년 동맹을 결성하므로 서로의 대결은 피할수 없게 되었고, 슈비츠에서 신교 목사 한 사람을 이단으로 화형에 처한 사건으로 서로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돌입하게 되었으나,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져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이것을 제 1차 카펠조약이라 칭하고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주들은 군비를 배상할 것. 둘째, 각주의 신앙은 다수에 의해 결정할 것. 세째, 종교상의 이유로 서로 전쟁을 하지 말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531년 10월 산림주들이 갑자기 8천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쳐들어 왔을 때, 신교도들은 2천의 군사를 동원했으나 이곳 전투에서 종파부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투에 신교도가 패함으로 해서 제 2차 카펠조약이 체결되어 지고, 완전한 개혁의 결실도 맺기 전에 지도자를 잃게 되고 말았다.

14킬로 미터나 되는 길고도 자리한 턴널을 빠져나오니, 흰눈을 이고 있는 산계곡에 빈 583킬로미터란 우뚝 선 이정표가 우리를 반겼다.

자정쯤 이곳을 출발하면, 새벽 5시 경엔 빈에 도착하리라. 그렇게 되면 닷새만에 3637킬로미터를 돌아온, 수박 걸壑기식의 여행에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다.

차로 새벽이 오고 있는 동쪽을 향해 밤을 헤쳐나가면서, 돌아보고 온 개혁자들과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선교 2세기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한국 교회, 교회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 부흥의 역사, 이것이 반 비례해서 한국 교회는 개혁되어 죄야만 한다는 소리가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다. 교권주의, 파벌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환탕주의, 기복신앙 등의 무서운 합병 증세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불화기선 가까이서 신음하고 있는 병든 거인 한국교회를 누가 다시 회생시킬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 치유가 가능할까?

누가 한국 교회를 머리 작은 거인으로 만들었고, 누가 그를 이런 몸을 병마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둘을 던지며, 누가 누구를 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을까?

신앙의 표준이요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성경을 신양생활 장식물 정도로 인식하고 파도를 타듯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광범들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티고 서야만 할 터가 혼들렸고 무너졌기 때문이었다고 하자.

그러나 새벽이 오고 있는 이 시간, 이제는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Reform) 희망찬 아침을 맞아야만 될 것 같다.

끝까지 성경에 충실히 하려고 했던 루터를 칼빈을 쓰빙글리를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 /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성경 ! ♣